

‘이물질 검사’에 뿔난 슈어저 “바지까지 벗어야?”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끈적이는 이물질을 사용한 투수들의 부정 투구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부정 투구를 한 투수들이 많고, 끈적이는 이물질의 도움을 받아 공의 회전수를 높였다는 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설명이다. 암묵적으로 이물질을 사용한 부정 투구를 용인해 준 감독들도 있었다.



▲ 거둬진 이물질 검사에 화가 난 슈어저가 하의 벨트를 풀려고 하자 심판들이 만류하고 있다. 사진=유투브(ESPN) 캡처

MLB 사무국은 최근 30개 구단과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심판들에게 ‘부정 투구 관련 제재’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21일부터 본격적인 부정 투구 검사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부정 투구 조사도 않았는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MLB 사무국이 부정 투구 단속 의지를 드러낸 이후 절반이 넘는 투수들의 회전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매체 ‘더 스코어’가 최근 조사한 결과 MLB 사무국 발표 이후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공의 회전수가 감소했다. 눈에 띄게 회전수가 현격히 감소한 투수도 3분의 1이 넘는다. 부정 투구 논란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회전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평균 타율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필라델피아 시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워싱턴의 투수 맥스 슈어저에 대한 이물질 검사 논란이 주목 받았다.

이날 슈어저는 1회 말 투구를 마치고 심판진의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3회 말

과 4회 말이 끝난 다음에도 필라델피아 지라디 감독은 다시 슈어저에 대한 이물질 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슈어저는 화가 난 듯 모자와 글러브를 벗고 심판에게 머리 정수리를 들이밀고 바지의 벨트까지 풀면서 옷을 벗으려고 했으나 심판진들이 만류했다.

지라디 감독에게 화가 난 슈어저는 5회가 끝난 뒤 글러브와 모자들 들어 보이며 자신에게는 이물질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필라델피아 덕아웃을 바라보며 소리질렀고, 이에 지라디 감독이 덕아웃을 박차고 나오자 주심이 퇴장 시켰다.

이날 경기에서 워싱턴은 필라델피아에 3:2로 승리했다. 슈어저는 이날 5이닝 2피안타(피홈런) 3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역투하며 시즌 6승째를 챙겼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부정 투구와 관련해 심판들은 경기 중 선발투수는 최소 2번, 불펜투수는 최소 1번 이물질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은 이닝 교대시에 이뤄진다. 하지만 이물질 사용의 의심될 때는 경기 중 어느 때나 점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물질이 적발된 투수는 바로 퇴장 당하고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케빈 듀란트, 미국 올림픽 농구 대표 합류 ... ‘4연패’ 닦 올려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네츠)가 미국 올림픽 농구 대표팀에 합류한다.

듀란트는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결승에선 세르비아를 상대로 30점을 쏟아내며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한 바 있다.

미국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최근 3번의 올림픽에서 우승했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서 4연패에 도전한다.



▲ 케빈 듀란트. 사진=트위터(Kasper Dal)

듀란트는 2019년 6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약 1년6개월동안 코트를 떠나 재활에 몰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4일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센터에서 열린 2020-21 NBA 프리시즌 워싱턴 워저스와의 경기에서 15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2블록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듀란트의 미국 올림픽 농구 대표팀 합류와 달리 NBA 최고스타인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도노반 미첼(유타 재즈) 등은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르브론은 이번 여름 자신이 출연한 영화 홍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고, 커리는 휴식을 택했다. 미첼은 부상 중인 오른쪽 발목 치료에 시간을 쏟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올림픽 농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력이란 분석이다. 대표팀에 뽑힌 선수 모두가 NBA 출신에 다 각 소속 팀에서 1, 2옵션을 맡은 에이스급들이다. 지난 22일 현재까지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브루클린 네츠), 데미안 릴라드(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드레이먼드 그린(골든스

테이트 워리어스), 브래들리 빌(워싱턴 워저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셀틱스), 데빈 부커(피닉스 선스), 아테바요(마이애미 히트) 등이 도쿄 올림픽 참가를 확정했다

특히 빌과 릴라드는 이번 시즌 리그 득점 2,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NBA 최고 득점원인 듀란트, 피닉스 선스를 서부 콘퍼런스 파이널로 이끈 부커 등 선수 개인 능력만 보면 여전히 세계 최고다.

미국과 금메달을 놓고 다툰 가장 큰 라이벌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2년 전인 2019 농구 월드컵 8강에서 미국을 꺾은 경험이 있다. 이번 시즌 NBA ‘올해의 수비수’인 루디 고베어를 필두로 프랭크 니라키나, 니콜라스 바툼, 에반 포니에 등 NBA 선수들도 준비하다.

이외에도 2019 농구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호주,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등도 메달권 유력 후보들이다. 루카 돈치치가 합류할 슬로베니아는 다크호스로 꼽힌다.

A조에 속한 미국 대표팀은 다음달 24일 프랑스와 조별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